


디지털로 가라

그에 맞는 장비 · 파트너와 함께

최근 오프셋용 CTP는 물론, 플렉소용 CTP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례하여 플렉소 인쇄분야의 기술도 발전, 오프셋에 가까운 인쇄품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 인쇄업계의 동향에 대해 크레오 본사 CEO인 아모스 미켈슨과 서면 인터뷰를 실시, 게재한다.

앞으로의 인쇄산업 경향은 어떠리라고 보는가

 -포장인쇄산업, 특히 라벨링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 본다. 지역화, 버죤닝(versioning), 고객맞춤화가 신경향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것은 다양하고 소량의 주문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납기시간은 더 빨라져야 한다는 얘기가. 크레오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인쇄종류별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오프셋 인쇄 : 크레오는 오프셋 인쇄 시장에서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가장 큰 가공업체는 크레오의 Staccato 스크리닝을 사용하고 있다.


스타카토 스크리닝과 SQUARE spot thermal imaging 방식은 Spot less printing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패키징인쇄업체와 가공업체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다. Spotless Printing은 4색 인쇄로도 효과적으로 별색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금색과 은색을 제외한 어떤 별색이든지 대체하고 싶으면 6색, 7색 인쇄로 가능하다.

플렉소 인쇄 : 2000년도에 Thermo Flex CTP를 출시한 이래 크레오는 플렉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대형 플렉소 CTP를 지향하는 북미지역 업체들에게 크레오는 가장 이름난 공급사이다. 최근에는 첫 번째 디지털 판재, onsleeve 이미징 장비를 소개했고, 이어서 고해상도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크리닝 기법, HyperFlex, Maxtone, DigiCap도 선보였다. 이번에 개발한 HyperFlex와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인정받아 FTA와 GATF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디지털 미디어 : 크레오는 판 출력기와 교정기에 맞는 판재 생산으로 오프


셋 패키징 인쇄에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가티브 Mirus 판은 스타카토10 마이크론 망점을 살릴 수 있는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패키징인쇄산업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가


 -포장은 변하고 있으며, 가장 커다란 추세는 디지털 공정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또 시장 자체도 이동하고 있다. 많은 출력소들의 역할은 파일 생산에서 데이터 관리로 바뀔 것이고, 이러한 경향이 주류를 이루기까지 몇 년 걸릴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패키징인쇄는 크레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패키징인쇄는 인쇄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패키징 시장이 요구하는 바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디지털 인쇄가 패키징의 미래를 쥐고 있다고 보며, 디지털 프린팅은 짧은 시일 내에 처음엔 홍보물이나 가변 인쇄에서 나타날 것이다.

어떤 기술이 프리프레스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데이터 포맷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PDF와 JDF를 통한 인쇄공정의 통합과 XML의 점차 커져 가는 중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리너지 파워팩은 처음으로 패키징 시장에서 PDF 솔루션을 제공한 립 시스템이었고, 인쇄공정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주자였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출시된 프리너지 파워팩 엔트리 레벨은 태그와 라벨인쇄업체,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또 크레오는 기획, 생산, 디지털 워크플로우 하나의 공정으로 통합하는 NGP(Networked Graphic Production)라는 개념을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현재 43개의 파트너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NGP는 기획에서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디자이너에서부터 인쇄인이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하여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완벽한 디지털 세상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인쇄사와 가공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공하려는 사람은 미래의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공격적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을 차별화 시켜야해야 한다.

작업시간 단축, 운영비용 절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쇄품질을 높이고 싶다면, 또한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만으론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술은 단지 여러분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차



아모스 미켈슨 CEO

별화 시키는데 밝는 하나의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고객과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이러한 전환과 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객의 시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며, 단

지 장비를 판매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언이다. '디지털로 가라, 그에 맞는 장비, 그에 맞는 파트너와 함께'.

〈윤재호 부장〉